

강소, '꽃나들이경제' 농촌 발전에 활력



3월 24일, 강소성 흥화시 천타관광지에서 꽃나들이를 즐기는 여행객들. / 신화넷

유채꽃, 벚꽃, 배꽃... 봄꽃이 만개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소성 각지에서는 '꽃나들이경제' 기회를 엿보며 지역 경제 진흥에 나섰다. 흥화(興化)시 천타(千塔) 관광지 들판에는 유채꽃이 활짝 폈다.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가람(柯藍) 민박 책임자 장충유(蔣忠維)는 "민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피크 시즌에는 객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그는 꽃나들이 관광에 힘입어 이 지역에 약 100개의 농가락(农家乐)과 40여개의 민박이 들어섰다고 소개했다. 소주시 태호(太湖)과학성(城) 기념구역에 들어서면 길을 따라 량요(梁

요)를 펼쳐진 벚꽃밭에서 꽃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여행객들을 볼 수 있다. 일부 여행객들은 꽃구경을 마친 후 소주시 수산(樹山)촌을 찾는다. 상해 출신 여행객 왕영뢰(王悅磊)는 "꽃구경, 전통시장 쇼핑, 현지 음식 맛보기까지 '꽃나들이 3종 세트'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했다. 수산촌에서 농가락을 운영하고 있는 오진(吳

辰)은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소비도 살아났다."며 "특히 배꽃 시즌에는 하루 평균 매출이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소성 여러 지역에서는 '꽃나들이경제' 효과 확대를 위해 소비 씨나리오 혁신에 힘쓰고 있다.

고우(高郵)시는 황폐했던 호수를 재정비하여 '호상화해(湖上花海)'를 만들었다. 관광지에서 여행객들은 유채씨 수확, 유채씨 기름 짜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이곳의 유채씨 기름은 '호상화해' 브랜드 이름을 달고 홍보·판매되고 있다.

흥화시는 섬 모양으로 만든 경작지인 타전(垛田)을 중심으로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국화꽃, 겨울에는 갈대꽃'을 볼 수 있는 문화관광명소를 구축했다. 이로써 봄 시즌에 한정됐던 '꽃나들이경제'를 사계절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수산촌은 취관(翠冠)배, 양매, 운천차(云泉茶)로 구성된 수산삼보(樹山參寶) 브랜드를 출시해 재배·가공·관광으로 이어지는 씨서비스 사슬을 마련했다. 지난해 수산촌의 농부산물 총수입은 6,000만원 이상, 주된 1인당 년평균 수입은 5만 8,000만원에 달했다.

강소대학 향촌진흥연구원 특별초청 연구원 전지건(田芝健)은 "꽃나들이경제는 꽃을 매개로 농촌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는 문화관광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를 재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신화넷

북경

웅안신구에 유망 기업 60개 이상 유치 계획



일전 북경시재정위원회는 수도 고 품질 발전 추진 관련 2025년도 업무 지침을 내놓았다.

해당 문건은 경진기(京津冀) 협동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최소 60개 이상의 유망 기업을 웅안(雄安) 신규 중관촌과학기술단지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북경 도시부중심과 관련해 제 2기 북경시 소속 국유기업 이전을 계기로 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2, 3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점(頂點)공원, 해양(海昌)해양공원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혁신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북경시는 '인공지능(AI)+' 행동

계획을 통해 의료, 교육, 제조 등 분야에서 최소 3개의 국가급 AI 산업 응용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업은 초기 연구개발(R&D) 투자 압박이 큰 점을 고려해 재대출·재할인 최저한도를 60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내외의 우수 대학교 졸업생 유치 강화도 포함됐다.

'양구'(兩區), 국가서비스업대학대방중합시협구와 중국(북경)자유무역시협구1 건설 가속화를 위해 중대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을 도입할 예정인데 총투자액은 2,000억원 이상이다. 또 독자병원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해 1~2개의 외자 연구형 병원을 북경에 유치할 계획이다.

/ 신화넷

청도, 제조·해양·의료까지 산업 곳곳에 스며드는 AI

산동성 청도시 료산(嶗山) 구인공지능(AI) 산업단지에 위치한 자연어의(自然语义·청도)테크회사. 직원들은 최근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어우라(歐拉)'를 선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딥시크, 챗GPT(聊天生成式预训练变换器) 등과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쳐 각종 질문에 대답한다.

"어우라"는 단일 노트북에서 오프라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시스템과 말뭉치 업데이트를 진행해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자연어의(청도)테크회사 최고경영자(CEO) 손안군(孫雁群)은 "자체 추론과 조정을 동시에 지원하고 사용자 수요에 따라 개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맞춤형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AI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해 산업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AI 혁신 응용 선두구인 청도는 지역의 컴퓨팅 파워 우위를 기반으로 산업 응용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색의 AI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청도는



2024년 11월 2일, 산동성 청도에서 열린 '2024 중국자동화대회'에 전시된 스마트 로봇. / 신화넷

강력한 산업 기반과 다양한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얼(海尔), 하이신(海信), 청도맥주 등 기업이 두각을 보이며 AI 산업에 풍부한 응용 씨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500여개에 달하는 청도시의 AI 기업은 스마트 홈퍼니싱·교통·의료·로봇·제조·하드웨어 등 분야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러쥬(乐聚)스마트홈(청도)로봇기술회사 전시실에 있는 '과부'(夸父)라는 이름의 인간형 로봇가 눈길을 끈다. 신장 160센치미터 정도의 이 로봇은 회사 상황과 각종 제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동작도 완성할 수 있다.

/ 신화넷

"잘 다져진 가전·홈퍼니싱 산업과 풍부한 응용 씨나리오를 기반으로 현재의 각 기관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러쥬 최고운영책임자(COO) 량가(梁佳)는 "최근에는 산동대학, 하이얼 등 대학 및 기업에 제품을 인도했다."며 "앞으로 각종 기능을 탑재한 가정용 로봇이 수많은 가정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시는 AI를 통한 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청도시 AI 산업 혁신발전 행동계획(2024년-2026년)>에 따라 공업 제조, 스마트 해양, 현대농업, 교통운수, 의료·료양·건강, 스마트 교육, 문화관광, 사회 거버넌스 등 8개 분야에서 102개에 달하는 응용 씨나리오 리스트를 비준하고 다양한 응용을 전개하고 있다.

청도 하이테크공업단지 관리위원회 AI 산업촉진부 장화동(张华东) 부장은 "항후 해양 및 인터넷 하위 산업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간형 로봇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도경제, 스마트 커넥티드카(智能网联汽车), 드론 장비 등 관련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화위, 지난해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목표 실적 달성

우리 나라 거대 과학기술기업 화위가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화위가 발표한 년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위의 매출액은 8,621억원, 순이익은 626억원에 달해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797억원으로 년간 수입의 약 20.8%를 차지했으며 10년간 연구개발 분야에 1조 2,49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화위의 연구개발 인력은 약 11만 3,000명으로 전체 직원의 54.1%를 차지했다. 유효 라이선스·특허는 15만건 이상에 달했다.

년간 보고서는 화위가 타사보다 10년 앞서 컴퓨팅 분야를 배제한 덕

분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화위 순환회장 맹만주(孟晚舟)는 계속해서 생태계 파트너들에게 플랫폼 기능을 개방하고 홍몽(鸿蒙)OS·곤봉(鲲鹏)·승등(昇腾)·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개발자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도구와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둥성 심수시에 본사를 둔 화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꼽힌다. 화위는 지난 2021년 6,368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달성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423억원, 7,04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 신화넷

산서성, 농업용 드론 구매 보조금 지급 예정



산서성 운성(运城)시 곡(曲)촌에서 드론으로 밀밭에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기술자 / 신화넷

산서성은 현대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 농업용 드론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서성농업농촌청에 따르면 드론 한대당 최고 1만 4,4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조금 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생산 경영자이다. 보조금 대상 기준은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임시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농업용 드론 제품으로 전문적으로

식물 보호, 파종, 미끼 투입 등 농림·목축·수산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이다. 또 전 과정에서 수동 개입 조작이 가능한 드론과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활성화된, 정책에 부합되는 농업용 드론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용 드론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드론 구입 후 최소 약 66.7헥타르 이상의 식물 보호 작업량을 완성해야 한다고 산서성농업농촌청은 전했다.

/ 신화넷

첫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마도호' 청도 운항 시작

4월 6일, 첫 국산 대형 크루즈선 '애달·마도호'가 청도국제크루즈모항에 입항하면서 중국 연안 순항의 서막을 열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상업 운항을 시작한 '애달·마도호'가 상해의 중국 항구도시에서 최초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애달·마도호'는 청도국제크루즈모항에서 출발하여 한국 제주와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는 국제 크루즈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은 4월 6일, 청도국제크루즈모항 부두에서 출입국변방검문소 경찰들이 '애달·마도호' 크루즈선 옆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신화넷

